

새 세기 아랍나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책동과 그를 반대한 이 지역인민들의 투쟁

정 광 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이 비법적으로 강점한 팔레스티나땅에서 물러가지 않고 제국주의자들이 아랍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책동을 그만두지 않는 한 팔레스티나문제는 해결될수 없으며 중근동에서의 평화도 보장될수 없습니다.》(《김일성전집》 제56권 49~50페이지)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유대복고주의자들은 아랍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침략과 함께 팔레스티나해방조직에 대한 테로와 압살책동을 강화한것을 비롯하여 이 지역나라들에 대한 도발행위들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먼저 아랍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침략책동을 강화하였다.

그 대표적실례가 레바논과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무력침공이였다. 이스라엘은 2006년 7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레바논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7월 12일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애국력량조직인 히즈볼라흐에 의한 2명의 이스라엘군 병사랍치사건을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레바논국가의 전쟁행위》로 묘사하면서 그에 보복한다는 구실밑에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한 기본목적은 그 무슨 보복에 있는것이 아니였다. 그 목적은 첫째로, 저들의 대유대제국창설야망실현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여나서는 히즈볼라흐세력을 타격하여 소멸 또는 약화시켜 보자는데 있었으며 둘째로, 미국의 《리익》에 부합되는 대리전쟁을 수행하여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지와 원조를 획득하자는데 있었다.

이로부터 전쟁 34일동안에 이스라엘공군은 레바논에 7 000여차례의 공습을 가하였으며 해군은 2 500여차례의 포격을 감행하여 1 280여명의 레바논민간인들을 살해하였고 4 050여명을 부상시켰을뿐아니라 97만여명의 피난민을 발생시켰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하여 레바논의 비행장과 발전소 등 31개의 주요시설들과 80개의 다리, 94개의 도로, 25개의 휘발유공급소, 900개의 기업체, 3만채의 살림집들과 병원들이 파괴되였다. 전쟁기간 레바논의 총 피해액은 35억US\$에 달하였다.

특히 이스라엘침략자들은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송이폭탄을 꺼리낌없이 사용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집단학살범죄, 특대형인권범죄를 저질렀다.

정화가 이룩된 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자기의 침략무력을 하루빨리 철수할대신 이 나라에 대한 공중 및 해상봉쇄조치를 계속 실시함으로써 레바논의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스라엘은 2008년말~2009년초사이에 가자지대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도 감행하였다.

2008년 11월에 들어와 이스라엘은 가자지대의 중부지역에서 《이스라엘병사들을 랏치하는데 리용될 터널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특수군을 들이밀어 적어도 6명의 하마스 무장성원들을 살해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하마스가 로케트탄공격을 단행하자 이스라엘은 때를 만난듯이 형식상으로나마 유지되어오던 정화를 파괴하고 2008년 12월 27일 하마스를 주되는 목표로 하는 본격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카스트 레드》라고 명명된 이스라엘의 침공작전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제1단계(2008년 12월 27일~2009년 1월 3일) 공습작전에서는 가자지대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F-16》전투기와 직승기, 미싸일, 《GBU-39》신형스마트폭탄 등에 의한 공중타격을 진행하였다. 제2단계(2009년 1월 3일~17일) 지상작전에서는 육해공군의 각 병종들과 항공육전대무력을 동원하여 지상과 공중, 해상 그리고 가자지대의 전지역에서 전면적인 지상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밖에도 이스라엘은 2013년 1월 그 누구의 《테로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미명 밑에 수리아의 령공에 폭격기들을 들이밀어 무차별적인 공습을 감행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한데 이어 5월 5일 새벽 수리아의 수도 디마스끄와 주변의 군사대상물들을 공습하였다. 그리고 2014년 8월에는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군사적침공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은 다음으로 아랍인민들에 대한 폭압과 암살, 테로행위에도 계속 매달렸다.

이스라엘수상이였던 샤론은 내각회의에서 《반테로전》의 미명밑에 팔레스티나민족당국수반 야씨르 아라파트를 공공연히 《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고립을 정책화하였으며 팔레스티나와의 전쟁을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은 야씨르 아라파트를 《테로를 막을 능력이 없는 사람》, 《테로를 조장하는 막후인물》이라고 헐뜯으면서 그에게 팔레스티나민족당국수반자리에서 물러날것을 강박하였으며 무력을 동원하여 그를 자택연금시키고 집과 사무실을 공격파괴하면서 생명까지 위협해나섰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부추김과 비호밑에 2003년 9월에는 그에 대한 강제추방결정까지 내리였으며 팔레스티나지도부제거를 노린 암살작전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팔레스티나인권센터가 발표한데 의하면 2003년 8월 21일 팔레스티나의 가자시에서 이스라엘군직승기가 팔레스티나이슬람교항쟁운동(하마스)의 고위간부인 아부 샤나브가 탄 승용차에 미싸일을 발사하여 샤나브를 포함한 4명을 죽인것을 비롯하여 2000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157차례의 암살작전을 감행하였다. 이로 하여 309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죽고 627명이 부상당하였다.

이스라엘은 강점당한 팔레스티나의 땅을 되찾고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는 팔레스티나항쟁단체들의 투쟁을 《테로행위》로 결고들면서 그를 진압하기 위한 테로, 무력침공작전도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항쟁단체들의 정화제의도 무시하고 요르단강서안지역의 여러 도시들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팔레스티나와의 합의도 꺾어버렸다. 그리고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에 있는 피난민수용소들에 공격용직승기들과 땅크들을 들이밀어 항쟁단체성원들과 죄없는 팔레스티나피난민들을 살해하고 부상입혔다.

이스라엘군의 만행에 의하여 2000년 9월부터 2003년 9월 사이에 팔레스티나인 2 738명이 목숨을 잃고 7만 1 787채의 살림집과 7 476개의 중소규모공장들, 1만 5 588 정보의 농경지가 파괴되었으며 40여개의 팔레스티나인학교가 이스라엘의 군사기지로 전환되었다.

이와 함께 가자지대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책동으로 하여 팔레스티나로동력의 43.7%에 해당하는 30만 2 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아랍나라들에 대한 무력침공과 야수적인 테로학살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였으며 그로 하여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위협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고조시켰다.

아랍인민들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침공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군사적조치로 대항해나섰다.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시 레바논의 애국력량조직인 히즈볼라흐가 강한 군사적대응으로 맞서 싸웠다.

이스라엘은 전쟁기간 지상작전에 수만명의 군대를 들이밀고 현대적인 미국제무기들로 히즈볼라흐를 압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히즈볼라흐는 반격을 가하여 100여명의 이스라엘침략군을 소멸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최신형중땅크인 《멜카바》를 수십대나 파괴하였다.

2008년 이스라엘의 가자지대침공때에도 아랍인민들은 로케트타격을 가하는 등 군사적대응으로 이스라엘의 침략에 맞섰다.

하마스는 전쟁기간 이스라엘국내에 로케트탄들을 계속 발사하였으며 가자지대를 침공한 이스라엘군장갑무력에 강력한 반격을 가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이스라엘은 원래 계획하였던 작전의 3단계 즉 가자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강점을 예견한 시가전은 시작도 못해보고 일방적인 정화를 선포하였다.

수리아도 이스라엘의 군사적침공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2013년 5월 5일 새벽 이스라엘이 수리아의 수도 디마스끄와 주변의 군사대상물들에 대한 공습을 진행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수리아정부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자들은 저들의 선택에 따르는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미싸일방어부대들을 긴급전개하는것과 함께 히즈볼라흐에 새로운 무기들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랍인민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군사적침공에 대처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공동항의조치들을 취하였다.

2000년 11월 에짚트는 팔레스티나의 평화적대상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행위들이 로골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주재 자기 나라 대사를 긴급소환하였으며 튀니지도 2000년 10월 중동평화과정을 파탄시킨 이스라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스라엘과의 연락사무소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하였다. 마로끄도 2000년 10월 중동평화과정을 파탄시킨 이스라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라바트주재 이스라엘연락사무소와 텔 아비브주재 마로끄연락사무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는 등 반이스라엘정책을 실시하였다.

2000년 10월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에서의 이스라엘군의 야만적인 행위로 하여 2 000여명에 달하는 팔레스티나인들이 죽거나 부상자가 발생하자 팔레스티나지도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학살만행을 야만행위로 낙인, 규탄하였다.

수리아의 골란고원에서는 수천명의 주민들이 반이스라엘시위에 떨쳐나섰으며 이라크의 수도에서도 1만여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떨쳐나와 이스라엘의 도살행위를 강력히 단죄 규탄하였다.

요르단에서도 수천명의 사람들이 반이스라엘구호를 웨치면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수많은 여성들이 총에 맞아 죽은 팔레스티나어린이의 어머니와의 런던성의 표시로 시위를 단행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살인만행을 비인간적행위로 낙인하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위는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중동지역에서의 평화과정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는것을 입증하는것이며 그것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있다.》라고 단죄하였다.

쿠웨이트와 카타르, 튀니지 등 여러 나라들에서도 팔레스티나인민들을 지지성원하는 시위와 집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국기를 불태우면서 반이스라엘구호들을 웨쳤다.

수리아는 이스라엘의 공습과 관련하여 긴급아랍수뇌자회의를 소집할것을 호소하고 그들의 행위를 극악한 범죄로, 테로행위로 낙인하면서 가자지대에 대한 침략을 즉시 중지할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하고 아랍국가련맹과 이슬람교국가회의기구에 팔레스티나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외무상 및 국가수반급 긴급회의들을 소집할것을 요청하였다. 아랍국가련맹 총서기는 이 사태와 관련하여 아랍나라 외무상들이 비상회의를 진행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아랍인민들은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군사적침략책동과 암살, 테로행위를 반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